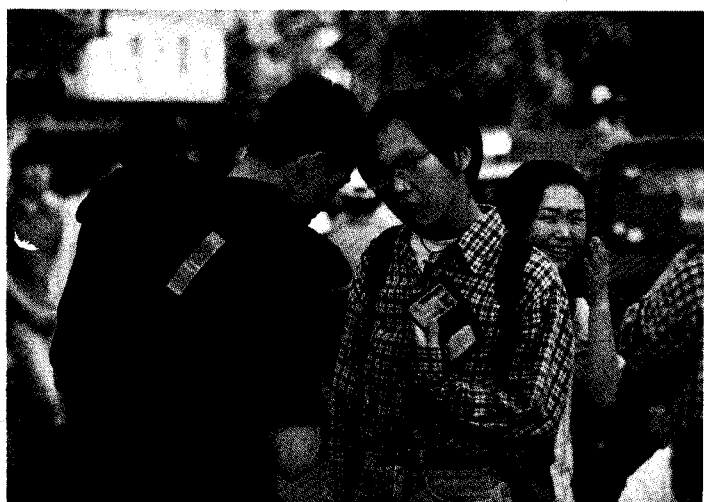




▲지난 주 한총련 출범식에 대비해 우리학교 앞에 배치된 전경의 불법 점포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

한총련 출범식 '힘들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양대에서 진행된 '제5기 한총련 출범식'이 경찰들의 강경진압과 원천봉쇄로 수많은 학생이 연행, 부상당하며 힘들게 치러졌다. <관객기자 5명>
출범식 전야제가 치러질 예정이었던 30일 저녁 한양대 주변은 이미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모인 4만여명의 학생들은 한양대 주변 대학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가지며 밤을 지냈다.
한편 같은날 밤 남부지역총학생연합 소속 1천여명의 학생이 서울 캠퍼스에서 전경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취재부)

수원 도서관기증 운동 '성황' 총 8천6백6권 기증받아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기증운동' 결과 총 8천6백6권의 도서를 기증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객기자 4명>
지난 3월부터 5월30일까지 실시한 이번 행사에선 김시철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 회장 2천5백여권, 김신(사회대 무역)교수 1천여권, 신현덕(산업정보 대학원)교수 4백59권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된 도서를 살펴보면 동양사 5천9백28권, 서양사 1천9백65권, 잡지 1백36권, 논문집 3백77권 등이다.
이에 대해 허종(외대 영문교수) 도서관장은 "이일련 재무처장, 진희섭 정년퇴임교수 등 이번 기증운동을 통해 전 경희 구성원의 도서관기증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홍보와 도서관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대학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기증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며 도서관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감사패도 증정할 계획이다.

GCS국제본부 NGO 획득 NGO세계대회 서울서 개최

밝은사회(GCS)국제본부(총재: 조영식 학원장)가 지난 5월 23일 우리나라 민간단체 중 두번째로 유엔경제이사회 산하 비정부 기구(NGO) 지위를 획득했다.
지난 80년부터 전세계에 본부를 결성, 현재 5백여개의 산하본부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GCS국제본부는 지난 92년 유엔공보국에 소속되었

다가 최근 경제사회이사회의 공청회 심의를 거쳐 유엔 정식 자문기구가 되었다.
또한 GCS국제본부는 오는 98년 유엔 NGO기구들과 공동주최로 도덕재건과 사회평화를 위한 대규모 NGO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대회준비 중에 있다.

학생생활연구소 연구결과

희망직도 '세대차이'

학교 정책 및 지도자료로 활용 계획

신입생은 자영업, 졸업생은 공무원, 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9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자영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한 학생생활연구소의 연구내용은 학생들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설문 항목도 다양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토대자료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관련 대학생활에 대한 질문 중 '부전공을 하는 경우 취업과 관련된 부전공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에 64%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해 대학진학 후 진로설정을 변화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 대부분이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해 강의시간 배정에 있어서 충분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응답자의 75%가 각 교과 교수의 학생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비해 '대학생활 중 교수의 학생에 대한 상담지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23%를 제외한 학생들이 '불만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해 대학내 사제간의 대화가 부족함을 보였다.

그리고 과외활동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과 교양 과목으로 보충해야 할 과목으로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어학을 들고 있어 취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이 기자)

경인지역 학점교류 실시 서울캠퍼스 포함... 21개교 참가

경기인천지역대학 학점교류가 이번 하계 계절학기부터 시행된다. 교육개혁을 통한 열린 교육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이번 교류의 참여 대학은 우리학교(서울, 수원)를 비롯해 강남대와 경기대, 경원대, 대진대, 명지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수원대, 순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안양대, 용인대, 인천대, 평택대, 가톨릭대 성심교정, 한국항공대, 한신대, 한양대, 협성대로 총 21개교이다.

학점교류 신청자격은 1학년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며 정제받은 사실이 없고 당해 학기를 등록해야 한다.

교류대학별 실시시기 및 개설강좌 문의는 수업과에서 하며 지원자는 우리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수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학점교류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걸쳐 모두 시행되며 정규학기 수강료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계절학기 수강료만 수강 대학 수업료 1/21(학점당)을 신청한 학점수에 따라 수강대학에

C.R.S. 합격자 발표

영어 29명, 전산 12명 통과

서울캠퍼스 교무처(처장: 유승희 교수)는 97학년도 1학기 C.R.S.인 중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어분야] △사학과=한영화 △이학부=정운정 △물리학과=최효규, 신승원 △법학과=박동수 △국제법부(야)=이인섭 △행정학과=민지원 △정치외교학과=권신주 △경제학과=윤정수 △경영학부=김현철, 김소연, 문숙희, 박동철, 박은실, 신승진, 윤소영, 전성민, 장원희, 최영재, 하연옥, 홍병주, 홍보슬 △미술교육과=오경란 △아동주거학과=정은경, 김아영, 유정림 △한국의학과=김신옥 △체육학과=김민주, 김은경

[전산분야] △물리학과=박주빈, 최효규, 나원철, 권 욱 △법학부=박찬영, 고경진 △행정학과=민지원 △정치외교학과=이주연 △경제학과=강경화, 김연준 △경영학부=김은성, 이원섭

연구처, LG 정유 감사패 전달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달 23일 오후 4시30분 중앙도서관 부층 강실에서 연구용 기자재 '엔진 동력 세트(3천만원 상당)'를 기증한 LG-CALTEX 정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동수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시탐

학생을 위한(?)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로 청중의 온갖 찬사를 받았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국민에게 있다는 이 연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느끼게 한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수강신청을 실시했다. 이번 수강신청은 97학년도 학부제 도입과 복수전공 전면 허용에 따라 예년과 다르게 방학중이 아닌 이전학기에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동시에 수강신청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이 교양 과목 신청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는 듣고 싶은 교양과목을 서둘러 등록하지 않으면 인원초과로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올 2학기부터는 장소계약이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양과목 인원을 제한없이 받아 누구나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바뀐 수강신청에 관해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김현영(생활과 학부 1)은 "밤 늦게까지 대기표를 받아 수강신청을 했다"며 "이번 수강신청 제도의 개선 사실을 알았다면 나 뿐만 아니라 전학생들이 좀 더 편히 수강신청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홍 수업과장은 "97학년도 학부제 시행으로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서 한 강좌의 수강인원이 다분히 타락적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며 "바뀐 상황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데 인원이 제한이 있는 과목과 혼동되어 혼란이 가중될까봐 수강신청을 늦게 해 인원과 파악이 힘들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학교가 이번에 시도한 제도의 변화는 분명 학생들을 '개신'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수강신청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면 먼저 학생들에게 제도의 개선내용을 알렸어야 했다. 학교가 서둘러 인원과 파악을 하려고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학생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인정될 수 없다. 기본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학사행정 편의를 위한 결과물로서 그 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후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김동혁 기자)

제40차 세계체육학술대회

33개국 7백여명 참가

제40차 세계체육학술대회(The 40th World Congress of ICHPER.SD)가 오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인간성 회복과 보다 나은 환경회복을 위한 체육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33개국 7백여명의 체육인들이 참가하며 ICHPER.SD, 제40차세계체육학술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 우리학교와 한국체육학회, KCHPER.SD가 주관한다.

대회 개최식은는 조영진 총장의 개회사, 조순 서울시장과 이인재 경기도지사의 환영사, 조영식 학원장 기조연설 등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 대회를 주최하는 ICHPER.SD(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Sport and Dance)는 195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탄생한 전세계 체육, 스포츠, 보건, 레크리에이션, 무용지도자들의 유일한 국제 전문단체로 미국육군사관학교 Doris R. Corbet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축구부 춘계결승전 진출

우리학교 축구부는 오늘 오후 2시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리는 '춘계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 출전한다. 지난 5월 28일 동대문운동장에서 개최된 관동대의 경기에서 연장 8분 후 하용우 선수의 골로 결승에 오른 우리학교는 대구대를 맞아 접전 끝에 1대 1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4대 3으로 이긴 연세대를 맞이해 싸우게 된다.

국제실무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정부지원의 국제대학원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제실무 전문인력 양성과정(주간, 석사과정)은 급변하는 21세기의 국제경영과 통상분야에서 활약할 경쟁력있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본 과정은 학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및 해외연수비 지원 등의 다양한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한 전일제수업, 전과목 영어강의 실시, 철저한 제 2외국어 교육으로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장래를 경희와 함께 가꾸어 나가자겠습니다.

◆ 97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전공(00명)

국제통상, 국제경영, 지역학(중남미)

◆ 특 전

1. 신입생에게 학비, 기숙사비, 해외연수비 등 다양한 장학혜택 부여
2. WTO 등 해외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경비 지원)
3. 유럽내 1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러피안대학과 연계하여 1학기 유럽파견후 복수학위 취득(학비감면)
4. 재학중 본교의 34개국 132개 해외자매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5. 방학기간중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저명교수의 교육과정 실시

◆ 전형방법

1. 필기시험 영어논술 및 국문논술 (토출 600점 이상 또는 토익 900점 이상은 영어논술시험 면제)
2. 면접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제출서류

1. 지원서(본대학원 소정양식)

2.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전학년 평균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4. 사진(명함판 사진) 3매
5. 국제 실무전문가로서 학업·진로계획서 (소정양식, 1000자 이상 2000자 미만)
6. 토출·토익 성적원본 및 사본 각 1부(해당자)

◆ 지원자격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교육부장관이 위와 같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 타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등은 추후 일간지를 통해 공고하겠습니다
2. 본 과정은 1998년 3월부터 수원캠퍼스에 신설될 아태국제대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전화 : 0331-280-2146~9, 팩스 : 0331-285-6344

10년 전 6월의 그 마음으로

죽음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넘어

그 아름다운 6월을 만들어낸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호헌절때

독재타도의 함성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에 충분했던

그해 6월을 기억하십시오.

대학주보는

10년 전 6월의 그 마음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밝히는

햇살이 될 것입니다.